

# 일자리 홍보로 취업난 극복 나선다

### 전북도-고용노동부 전주 등 3개기관, 지역인재 채용 위한 업무협약

### 홍보매체 · 방송 다양화... 정보 쉽게 접해 미스매칭 등 해소 기대

전라북도·고용노동부 전주지청·전주벤처기업육성추진지구발전협의회·TBN전주교통방송은 10일 전북도민의 취업난 해소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라북도 지역

인재채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MOU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 내 정착하고 지역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일자리 정책

및 경제활동지원 등 홍보방송을 위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전북도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 각 기관 간 일자리 창출노력을 통한 지역사회공헌과 취업난 해소

등 실업문제 극복을 위해 상생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희숙 도 경제산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일자리 홍보 매체를 다양화 하여 전북도민이 일자리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등 취업난 극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을지연습 준비태세 이상 無

### 87개 기관 · 1만5000명 참가 | 실전같은 훈련으로 안보 확립

전북도는 10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도 실국장 및 14개 시군 부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을지연습 준비보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성공적인 을지연습 수행을 위해 연습개요, 세부 훈련내용, 향후 추진계획 보고와 총무계획의 실효성 검증 및 연습기간 중 관련 기관 간 협조사항 등의 전반적인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로 50번째를 맞는 을지연습은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중점관리업체 등 도내 87개 기관 1만5,000여 명이 참가하여 실시된다.



10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도 실·국장 및 14개 시·군 부단체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을지연습 준비보고 회의를 열었다.

전북도는 "이번 을지연습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안보상황과 전년도 연습결과 개선과제 등을 반영해 국가위기관리와 국가총력전 대응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데 목표를

두고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송하진 도시사는 "불시 도발 상황을 대비해 도, 시

군 및 군경 등 유관기관과 단합해 실천에 임한다는 자세로 적극 참여하고, 새로운 도발유형에 대응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다양한 훈련 및 도민과 함께 참여하는 훈련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 휴가지 '데미샘휴양림' 각광

### 세미나실 → 숙박 겸용 리모델링 등 시설 보완 · 확충

### 숲속휴게시설 · 체험 장소 등 입소문... 내방객 급증

전북도 산림환경연구소는 10일 숲에서 행보를 누리는 산림 서비스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확충했다. 섬진강 발원지인 데미샘자연휴양림이 입소문을 타면서 휴양림을 찾는 내방객이 급증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이 살아있는 200ha의 넓은 부지에 숲속의집(10동), 한옥형 숙박시설(2동), 휴양관(1동 11객실), 숲 문화마당, 명상의 숲, 물놀이장, 북카페, 산책로, 전망대 등 다양한 객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성수기는 물론 비수기에도 이용객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하여 늘어나는 산림휴양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세미나실을 숙박 겸용으로 리모델링(105.3㎡)하여 숙박 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였

으며, 단순 휴식에 그치지 않고 연중 숲에서 즐길 수 있도록 숲속휴게시설을 조성하여 체험 및 교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어린이놀이터 및 워터슬라이드 조성 등 어린이, 청소년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시설도 마련됐다. 또한 높은 등산로를 탈피하여 노약자와 어린이들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의 혜택을 다함께 누릴 수 있도록 등산로 정비하는 등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해중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연차적으로 휴양림 시설을 보완 확충하여 휴양림을 찾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즐거움을 제공하며 명품 휴양림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창업도약패키지 신청하세요

24일까지 기업 모집... 선정시 최대 9000만원 지원

창업성장단계 지원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이 2차 참여기업 모집에 나섰다.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북센터)는 9일, 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3년~7년차) 지원을 위한 '2017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는 창업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금조달과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일명 '죽음의 계곡') 시기 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마련됐다. 전북센터는 이들 기업에게 ▲제품 패키지 제작 ▲글로벌 진출 사업 패키지 ▲IR준비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며 매출, 고용, 수출 증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특히 전북센터는 기존 도약패키지 지원 사업에 '4차 산업혁명-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확대 운영하며 이 분야 창업기업 발굴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우수사례 경진대회

### 완주군 청년정책 공약 '최우수'

완주군의 청년정책과 주민참여예산 공약이 전국 자치단체 공약 가운데 최고의 우수사례로 뽑혔다. 10일 완주군은 양일간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열린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충남발전연구원 공동주최한 경진대회에서 완주군의 청년정책과 주민참여예산 공약이 영예의 최우수상을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전국 지자체의 우수공약 152개를 대상으로, 시책 발표 및 심사위원의 엄격한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에 오른 완주군의 청년정책은 '완주에서 놀고, 먹고, 완주에서 살자'라는 주제 아래 '청년 JUMP 프로젝트'란 기본계획을 토대로 'N포세대'로 일컫는 청년층에게 완주에서 희망을 찾자는 메시지를 던져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 삶 전반에 걸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개 분야에서 23개 과제를 도출·실행함으로써, 단순한 일자리 해소를 넘어 완주군의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와 연계해 청년들이 가치있게 살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 기존 읍면별 4~7억원 정도의 지역 개발을 위한 주민자율 편성예산(총 65억원)은 물론, 올해부터 군민의 참여와 권리 보장을 위해 ▲사회경제·문화·관광·농업농촌·복지 등의 사업 ▲청년의 일자리창출, 주거복지 등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사업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을 육성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사업 등 8억원 규모의 군 단위 정책사업(8억원)에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어린이 의회 운영 ▲청년정책네트워크단 운영 등 다양한 연령

대가 참여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선7기 4년 동안에 280억원 규모의 1,000개 주민참여사업이 시행되도록 한다는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2015년 도시재생(삼례), 2016년 농토피아 완주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의 최우수상 수상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최우수상을 받은 주민참여 예산제, 청년정책 외에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한 아파트 공동체 사업, 그리고 나머지 공약도 주민과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